Music Biz Weekly Brief

음악산업 주간브리프

제3호 2008.12.25~2008.12.31

Ⅰ. Analysis Overview ····· 1

Ⅱ. 국내 동향 ····· 4

1. 산업정책 및 제도 ····· 4
2. 음악업계 동향 ····· 6
3. 소비자동향 ····· 8
4. 언론동향 ····· 14
5. 행사 및 협회 소식 외 ····· 16

Ⅲ. 해외 동향 ····· 18

1. 해외 음악산업 동향 ····· 18
2. 한류관련 음악사업 동향 ····· 22

KOCCA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Ⅰ. Analysis Overview

<국 내 동 향> ····· **4**

[산업 정책 및 제도] ····· 4
- 김평수

2008년 음악산업결산 - DRM 시대의 마감 ····· **4**
세계 4대 음반사 (소니BMG, EMI, 유니버설, 워너)가 모두 DRM 프리선언 이제 한국도 DRM Free 가 대세.

동방신기, 빅뱅, 문화부장관 표창 수상 ····· **4**
2008년 대중 음악을 통한 문화산업 발전에 가장 이바지한 공로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수상. 선정된 두 팀 모두 2008년 최다, 최고 음반판매고 기록.

[음악업계 동향] ····· 6
- 김 훈

터치를 통해 음악을 느낀다 ····· **6**
"휴대용 멀티미디어 기기가 단순히 음악과 영상을 감상하는 기기에서 '느낌'까지 전달해주는 기기로 진화되고 있다".

국내 온라인 영상물 불법복제물 이용률 90% 넘어 ····· **6**
영화를 제외한 방송, 교육, 음란물 등 불법복제 영상물 이용률은 온라인에서 90.41%를 차지했다.

통계 발표 2007년 음반 및 비디오물 소매업 뚜렷한 감소 ····· **7**
2007년 전자상거래 매출이 전년대비 21%증가한 4조4천억원 보인 반면 음반관련 소매 및 임대업은 뚜렷한 감소를 보였다.

기타 단신 등 ····· **7**
- 이통사 음원서비스가격 인상
- ZY의 첫 정규앨범 'Memories', 1월의 우수 신인 음반에 선정
- IHQ 및 TU미디어 인사동정

[소비자 동향] ····· 8
- 서상아

저조한 판매량 속 아이돌 강세 ····· **8**
한 해의 음악산업을 정리하는 많은 행사들이 있었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음반 판매량은 더욱더 하락하는 주였다. 이 같은 저조한 판매량 속에서도 빅뱅, 비와 같은 아이돌의 강세는 계속 되고 있어 음반 판매량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다.

신곡이 그리운 음원차트 ····· **12**
<총 맞은 것처럼>의 1위 행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기존 곡들의 차트 내 체류가 길어지는 모습이었다. 더불어 활약이 기대되는 신곡들의 진입이 뜸해지고 있어 음원차트 내의 활발한 움직임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 같은 신보 품귀현상은 여러 행사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홍보 통로가

차단되는 연말 특수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언론 동향] ····· 14
- 박진석

‘묻지마 저작권 소송’ 어디까지? ····· **14**
지난 주, 포털 사이트의 저작권법 위반과 관련된 형사 처분이 언론의 이슈가 된데 이어 이번 주는 ‘묻지마 저작권 소송’에 따른 피해와 그 대책 마련이 가시화 되며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특히 언론은 정부와 국회의원들, 학자들을 비롯하여 네티즌들까지 가세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고 보도하였다.

박진영·휘성·은지원 등 청소년 유해매체 ‘무더기’ 판정 ····· **14**
언론은,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지난 29일 발표한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 에서 박진영과 은지원, 휘성, 바나나걸, 에픽하이 등의 노래가 청소년유해매체 판정을 받았다고 보도했으며 선정적인 표현과 마약표현 등이 이번 판정의 기준이 됐다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입장을 전했다.

보아·세븐·비, 해외 음반시장 본격 공략 ····· **15**
언론은 보아의 디지털 싱글 '잇유업'이 최근 빌보드지 '클럽차트'에서 순위가 15위까지 진입하는 등 선전을 펼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비록 클럽차트가 마이너 차트이지만 가수의 성장 가능성을 짚어주는 중요한 지표로 평가된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요 단신 ····· **16**
-김연아, 강마에 등 클래식의 스타마케팅을 통한 대중에의 접근
-블루오션으로 떠오르는 매장음악서비스
-오투잼-울림엔터테인먼트, 음원 공급 계약

[행사 및 협회 소식 외] ····· 16
- 장정희

스쿨뮤직 ‘쇼킹 트위스트 뮤직 페스티벌’ 개최 ····· **16**
30일 온라인 악기판매 전문기업 스쿨뮤직은 ‘쇼킹 트위스트 뮤직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메가TV 라이브’ 개국 기념, ‘메가TV 樂 페스티벌’ IPTV, 내 공개 ····· **16**
19일 강원도 평창군 용평 스키장에서 개최한 ‘메가TV 樂 페스티벌’ 콘서트를 메가TV내 ‘음악’메뉴를 통해 공개

엠넷미디어에서는 부장급 음악사업부문 경력사원을 모집 ····· **17**
CJ그룹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가능하며, 접수는 01월 11일 까지다

이소라 '7집의 ‘노래 제목 공모’ 이벤트 진행 ····· **17**
가수 이소라가 자신의 7집 정규앨범 타이틀곡을 비롯해 4곡의 노래 제목을 인터넷을 통해 공모

<해 외 동 향> ····· **18**

[해외 음악산업 동향] ····· 18
- 고민정, 장정희

디지털 음악 시장의 성장은 계속 된다 ····· **18**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디지털 음악 판매는 복합적 측면에서 차후 5년간 매년 17% 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휴대전화 시장도 주목할 만하다.

음반회사, 인터넷을 통해 재기를 꿈꾸다 ····· **18**
지난주 WMG가 유튜브와의 재계약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한 뮤직비디오 시장에 대한 음반회사의 관심은 계속되고 있다. 그들은 새로운 탈출구로 Hulu를 지목하고 있다.

디지털 음악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에 주목하다 ····· **19**
- 소비자가 만드는 음악, RjDj.
- 음악 변환 프로그램 UD-10.1 Lite.

여전히 지속되는 저작권 문제들 ····· **20**
- RIAA의 Jammie Thomas에 대한 항소 기각
- 음반 회사들, 호텔과 감옥에 저작권료 요구

주요단신 ····· **22**
- Walmart, Unilever와 음악 소매 사이트 협력
- Sony, Albert와 라이센스 재계약

[한류관련 음악산업현황] ····· 22
- 고민정, 김평수

가수 비, 태국 · 대만챠트 1위로 아시아시장에서 기염 ····· **22**
태국, 대만, 홍콩 등 7개국에서 12월 중순 발매된 비의 5집이 태국 음반 판매체인 그래모폰의 아시아차트 1위에 이어 대만 최대 음악포털사이트 KKBOX에서도 1위.

한국 가수들, 美 음반시장 진출 러쉬 ····· **22**
보아, 상반기 앨범내고 전미투어 추진. 세븐, 2월에 미국시장 데뷔, 비는 8월 듀엣곡 담은 월드앨범 발표

Ⅱ. 국내 동향

1. 산업 정책 및 제도

1.1 2008년 음악산업결산 - DRM 시대의 마감

2006년 노르웨이와 스웨덴, 덴마크의 소비자 옴부즈맨 기관들이 애플사의 아이튠즈(www.iTunes.com) 서비스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MSN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또한 2007년에도 미국에서 한 소비자에 의하여 애플사가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소송이 제기됐었다.

2007년 2월 스티브잡스는 "대형 음반 업체들이 디지털저작권관리(DRM)를 포기한다면 아이튠스를 개방하겠다" 고 발표했다. 아이튠스에 DRM을 설치한 것은 음반 업체들의 요구 때문이란 것과 이제 음반 업체들이 DRM을 포기할 때가 됐다는 메시지를 담은 메시지였다.

CD 판매 등 오프라인 음반시장이 쇠퇴하고 인터넷을 통한 음원 다운로드가 음반시장의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불법 다운로드로 인한 저작권 문제와 서비스마다 다른 DRM 기술로 서비스 간 호환성이 없는 것이 계속 음원 다운로드 시장의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잡스의 공개서한은 곧장 세계음악 시장을 흔들었다. 얼마 후 EMI는 애플과 손을 잡았고 200만곡의 음원을 DRM Free 상태로 개방했다. 음반사들은 앞 다투어 DRM Free 대열에 합류하였고, 2008년 초 소니BMG가 DRM 해제 대열에 합류하면서 세계 4대 음반사 (소니BMG, EMI, 유니버설, 워너)가 모두 DRM 프리 행렬에 동참하게 되었다. 디지털 음악 판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저작권에 보수적인 태도를 보여 왔던 음반사들도 DRM 해제를 거스를 수 없는 추세로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작 문제제기는 주도했지만 본인은 DRM정책을 고수하던 애플도 마침내 2008년 11월 DRM을 해제하게 되면서 DRM-Free 시대가 본격화된다. 미 시장조사업체 인스탯에 따르면, 전 세계 음악시장 판매액에서 디지털 음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오는 2012년에는 4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DRM은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기술이지만,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세계 4대 메이저 음반사 모두가 DRM Free를 선언함으로써, 디지털 음악시장의 DRM Free 열풍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글로벌 10대 뉴스] 4대 음반사 DRM 해제" 전자신문, 2008-12-29
"Thoughts on music" 스티브 잡스의 공개서한 http://www.apple.com 2007-02-06
애플 아이튠즈, 마침내 '백기'...'DRM 프리' 확대 지디넷코리아뉴스 2008-11-20

1.2 동방신기, 빅뱅, 문화부장관 표창 수상

2008년 대한민국 문화산업 분야에 가장 크게 기여한 음악산업 유공자로 '빅뱅'과 '동방신기'가 선정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매년 연말 문화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문화산업 분야 유공자를 선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금년에는 이례적으로 대중가수 연예인 2팀이 선정되었다.

기술의 발전에 기댄 '음악의 불법 소비'로 대중음악 시장이 총체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현재, 한국 음악계에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온 대표적인 남성 아이돌그룹 "빅뱅"과 "동방신기"는 2008년 활발한 활동을 통해 일본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등 국내외에서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으며, 예상대로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을 통해 한국 대중음악계를 대표하는 두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두 팀 모두 음반시장 불황이라는 흐름에 아랑곳하지 않고, 금년에 최다 음반판매고를 기록했으며, 국내외 활동을 병행하여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특히 이들의 인기는 해외에서도 높아, 한국이 낳은 아시아 최고 인기 그룹으로 도약하고 있으며 한국 대중음악 아이콘으로 아시아에서 그 파워를 맹렬히 떨치고 있다. 이들은 비주얼한 매력과 가창력, 춤 이라는 인기 아이돌 가수로서의 3박자를 고루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이 외에도 스스로 본인의 음반을 프로듀싱하고, 작사 또는 작곡에 참여하는 등 음악성도 갖추고 있다. 특히, 국내 무대뿐 만 아니라, 해외 진출을 고려한 전략형 그룹으로서 외국어 실력까지 고루 갖춘 실력파 그룹들이다.

빅뱅은, 힙합과 R&B 장르의 음악을 구사하는 남성5인조 아이돌 그룹으로서 작사, 작곡, 편곡, 프로듀싱까지 멤버들이 도맡아 작업하는 실력파 그룹으로 유명하다. 데뷔 2년 만에, 국내 누적 음반 판매량 50만장을 돌파하였으며, 그 외 일본, 태국 등에서 성공적으로 아시아 투어를 개최하여 한국 문화산업의 해외 진출과 확산에 기여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2008년 한국에서 발매한 두 장의 미니앨범과 한 장의 정규 앨범으로 총 50만장 판매고를 기록했으며, 발표 곡마다 지상파 음악방송 순위 1위를 석권하는 등 대중적인 인기와 음악적 실력을 인정을 받고 있다.

또한, 2008년 10월 일본에서 정규앨범 "No.1"을 발매하여 발매 당일 일본 오리콘 앨범 데일리차트 3위를 기록하는 등 일본에서도 높은 인기를 인정받았으며, 일본 동경, 오사카, 나고야 3개 도시에서 개최된 콘서트 투어 'Stand Up 2008'을 통해 관람객 전석 2만 명 매진을 기록했다. 올해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콘서트 공연은 5,000석 전석이 매진되는 등 동남아시아에서도 빅뱅의 인기는 절정에 달해 있으며 이를 통해 해외에 한국 대중음악 진출 및 확산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동방신기 역시 2008년을 가장 화려하게 보낸 그룹이다. 한국 내 최고 음반 판매고 기록 및 일본 오리콘 주간 싱글차트 4곡 연속 1위 기록, 중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 개최한 아시아 투어를 통해 39만 명 동원 등, 음악을 통한 한류 지속 및 확산에 대표적으로 기여한 그룹으로 손꼽힌다.

국내에서 2008년 발매한 앨범 'MIROTIC'(미로틱)은 2008년 국내 발매 음반으로서는 최고 판매고를 기록, 2006년에 이어 두 번째 음반 판매 정상의 자리에 오르며, 명실상부 한국을 대표

하는 아이돌 그룹으로 자리 매김을 하였다.

해외 활동 역시, 일본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오리콘 싱글 주간차트에 외국 가수로서는 최초로 '08년에만 4곡의 싱글을 모두 정상에 랭크시켰으며, 일본 최고의 가수들에게 수여하는 'TBS일본레코드대상' 우수가수상을 수상하였고, 일본 연말 최고의 음악프로그램 'NHK홍백가합전' 등에 외국인 그룹으로서 최초로 참가를 확정했다. 이 외에도 일본 8개 도시 17회 아레나 투어와 아시아 6개 도시에서 진행했던 아시아투어에서 총 39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재)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의 신현택 이사장은 "최근 침체된 한국 음악시장에서 여러 톱 가수들이 새로운 앨범을 내고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던 2008년도는 한국음악계에 있어 의미가 큰 해"라고 언급하며, "작년과 비교 해 음반 판매량 상승과 함께 개성 있는 댄스 가수들의 활동이 눈에 띄게 나타나 음반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 그 중에서도 빅뱅과 동방신기의 활약은 단연 돋보였다. 철저한 사전 준비와 훈련, 경쟁력 있는 음악실력과 창작력, 그리고 해외 진출을 위한 체계적인 현지화 전략 등을 통해 국내 음악 시장은 물론 아시아 여러 시장에서 한국 음악 수준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한국 음악시장이 속히 침체를 벗어 던지고, 예전처럼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과 음악 업계의 협력 그리고 음악소비자들의 실제적인 실천에 해결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동방신기 빅뱅, 문화부 장관 표창...문화산업 발전 기여". 이데일리. 2008-12-31
"빅뱅-동방신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동아일보. 2008-12-31 外

2. 음악업계 동향

2.1 터치를 통해 음악을 느낀다

터치스크린 인터페이스(UI)와 결합된 국산 휴대용 멀티미디어 기기가 속속 출시되고 있다. 삼성전자 '옙 P3', 코원 MP3플레이어 'S9', 디지털큐브의 PMP '아이스테이션 T5' 등의 기기들이 터치하는 형태의 UI로 출시되면서 기존의 음악을 듣는 기기에서 진동 등의 감각적 기능부분이 추가된 감성기기로의 진화를 보여주고 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디지털큐브 관계자는 "휴대용 멀티미디어 기기가 단순히 음악과 영상을 감상하는 기기에서 '느낌'까지 전달해주는 기기로 진화되고 있다"며 "결국 내년 업계판도는 이용자들의 '감성'을 잡을 수 있는 UI에서 승부가 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터치가 대세..."음악을 손으로 느껴요" [머니투데이 12월 30일]

2.2 국내 온라인 영상물 불법복제물 이용률 90% 넘어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가 포커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월11일부터 10월15일까지 전국의 만 15-49세 남녀를 대상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이용된 저작물의 유통경로와 불법복제 실태를

설문조사한 결과, 불법복제물 이용률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화를 제외한 방송, 교육, 음란물 등 불법복제 영상물 이용률은 온라인에서 90.41%를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36.52%에 이르러 음악, 출판 등 다른 장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작권 침해율이 높았다.

분야별 온라인·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이용비율은 음악 67.59%·29.91%, 영화 83.18%·7.91%, 출판 72.93%·12.36%로 각각 조사됐다. 저작권단체연합회 관계자는 "불법복제물의 온라인 유통경로는 음악과 영상은 P2P, 출판물은 포털사이트, 영상물은 P2P와 웹하드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특히 개봉 전 영화의 유통경로는 P2P를 이용해 처음 유포된 뒤 웹하드와 포털사이트로 확산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온라인, 불법복제 영상물에 점령당하다 [인터뷰365 2008.12.30]
"온라인 영상물 90% 이상 불법 이용" [아시아투데이 2008.12.29] 외

2.3 통계 발표 2007년 음반 및 비디오물 소매업 뚜렷한 감소

2007년 전자상거래 매출이 전년대비 21% 증가한 4조4천억원을 보인 반면, 음반관련 소매 및 임대업은 뚜렷한 감소를 보였다.

통계청은 2008년 12월28일 2007년 서비스업 부문 통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및 핸드폰이 발달함에 따라 전자상거래업(사업체수 30.9%, 매출액 21.1%), 온라인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사업체수 58.5%, 매출액 78.3%), 통신기기 소매업(사업체수 15.5%, 매출액 9.0%) 등이 전년에 비하여 크게 성장하였다.

반면 음반 및 비디오물 소매업(사업체수 -15.4%, 매출액 -18.6%), 음반 및 비디오물 임대업(사업체수 -25.4%, 매출액 -21.4%), 전자게임장 운영업(사업체수 -42.8%, 매출액 -51.3%), 영화관 운영업(사업체수 -15.8%, 매출액 -7.1%) 등은 위축되었다.

[관련자료]

2007년 기준 서비스업부문 통계조사 결과(도소매업조사, 서비스업조사,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조사), [통계청 2008년 12월28일]

2.4 기타 단신 등

- 이통사 음원서비스가격 인상

멜론, 도시락, 뮤직온 등 이동통신업체들이 운영하는 음원서비스 가격이 2009년 1월부터 일제히 1000원씩 인상된다.

[관련자료]

이통사 음원서비스가격 몰래 인상? [머니투데이 경제 | 2008.12.30]

- ZY의 첫 정규앨범 'Memories', 1월의 우수 신인 음반에 선정

가수 ZY의 앨범 'Memories'가 1월의 우수 신인 음반에 선정됐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원장 고석만) 주관 하에 매월 추진 중인 '이달의 우수 신인음반 선정 및 홍보 지원사업'은 2006년 6월부터 매달 공모를 통해 1차 전문가 심사와 2차 네티즌투표를 거쳐 '이달의 우수 신인 음반'(1개)을 선정해 오고 있다.

선정된 음반 및 가수에 대해서는 한달간 SBS-TV 일요 인기가요 파워루키(POWER ROOKIES) 출연과 SBSi 포탈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홍보를 지원하고 있다.

[관련기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감성 전달하고파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2008-1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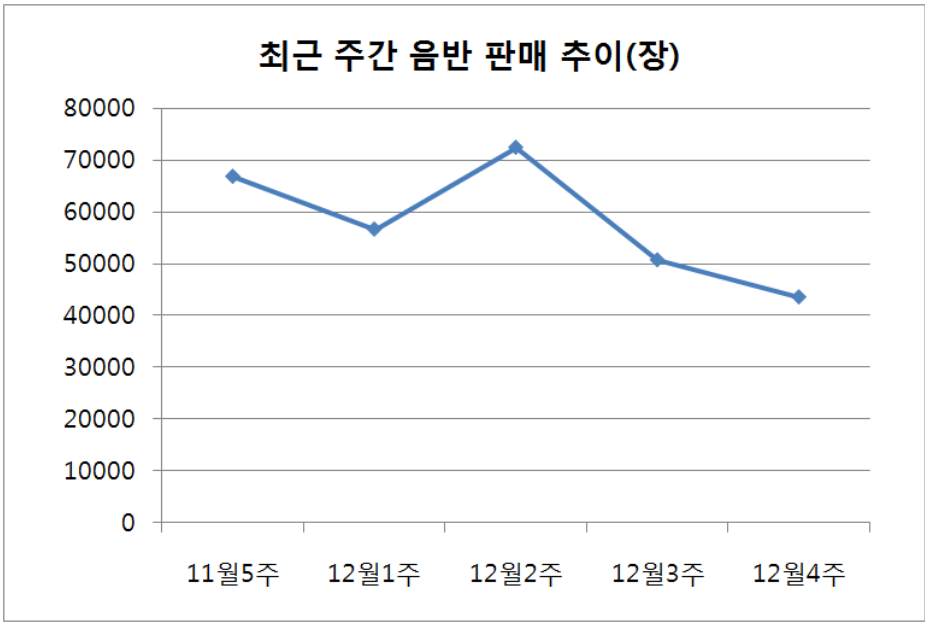
- IHQ 및 TU미디어 인사동정

- IHQ 신임이사에 SK텔레콤(주) 고문인 오증근, SK텔레콤(주) C&I기획실장인 김수일씨가 선임
- SKT의 위성DMB 자회사인 TU미디어에 박병근씨가 신임 사장으로 선임되었으며, 전 사장인 서영길 대표는 SKT상임고문으로 선임

3. 소비자 동향

3.1 음반동향 : 저조한 판매량 속 아이돌 강세

12월 마지막 주(12월 26일 ~ 12월 31일)는 들뜬 연말 분위기와는 다르게 지난주에 이어 더욱더 음반 판매량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1위부터 20위까지의 총 음반 판매량은 4만 장 언저리까지 하락하면서 2008년을 마무리 하였다.



출처 : 주)한터정보, 편집 : 사)한국문화전략연구소 문화와경제 (기간:12월 25일 – 31일)

금주 음반차트는 아이돌 가수들의 음반이 전체적인 음반 판매의 하락 속에서도 강세를 보였다. 발매 이후 지속적으로 최상위권 순위를 지키던 빅뱅의 경우 7천 장에 가까운 판매고를 올리며 지난주에 이어 1위를 지켰다. 특히 12월에 들어서면서 매주 약 7천 장의 꾸준한 판매 추이를 보이고 있는 빅뱅의 2집 앨범은 다른 가수들의 활동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있어 이번 앨범 역시 기존의 다른 앨범과 마찬가지로 스테디셀러로 자리를 잡고 있다.

빅뱅과 더불어 비, 원더걸스 등의 앨범 판매 역시 소량이지만 전체 판매량 추이와 다르게 늘고 있었다. 특히 빅뱅과 원더걸스의 경우 현재 활동하고 있는 앨범보다도 예전에 발매했던 앨범의 판매가 늘면서 판매 순위가 다시 오르고 있었다. 이는 방송사들의 연말 특집 가요프로그램의 영향으로 인해 예전 노래들이 방송을 타면서 음반 판매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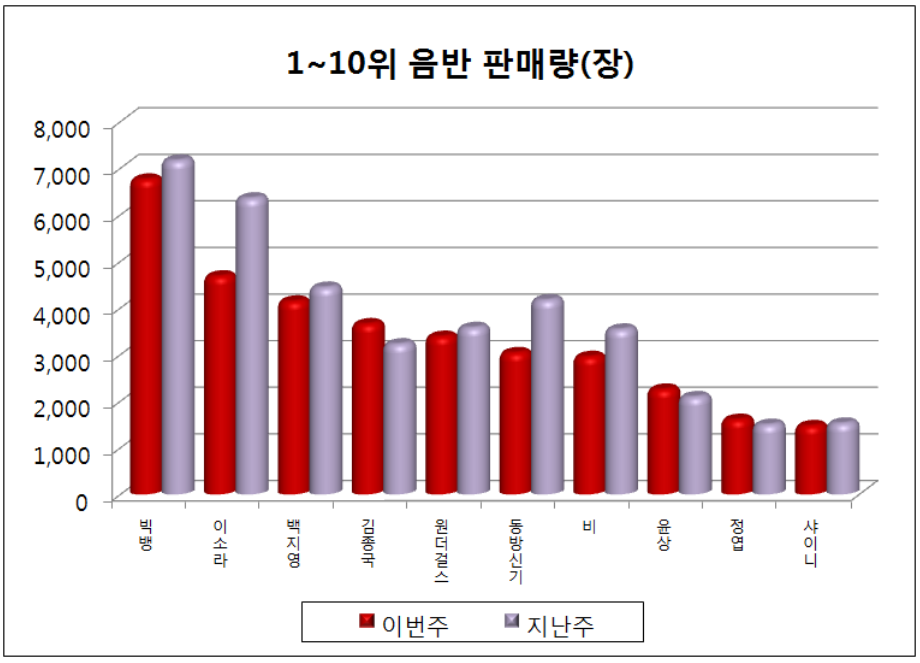
순위	변화량	아티스트 / 앨범명	음반사	장르	금주 판매량	전주 판매량	발매일
1	-	빅뱅 2집 / Remember	엠넷	가요	6,763	7,168	2008/11/5
2	-	이소라 7집 / 겨울, 외롭고 따뜻한 노래	엠넷	가요	4,684	6,358	2008/12/17
3	-	백지영 7집 / Sensibility	로엔	가요	4,144	4,441	2008/11/14
4	▲3	비 5집 / Rainism	엠넷	가요	3,658	3,226	2008/10/15
5	▼1	김종국 5집 / Here I Am	로엔	가요	3,388	3,577	2008/10/22
6	▼1	원더걸스 / The Wonder Years : Trilogy	로엔	가요	3,037	4,171	2008/9/30
7	▼1	동방신기 4집 / Mirotic	에스엠	가요	2,956	3,543	2008/9/26
8	▲2	샤이니 1집 / The Shinee World A버전	에스엠	가요	2,254	2,092	2008/8/29
9	▲3	빅뱅 미니앨범3집 / Stand Up	엠넷	가요	1,606	1,498	2008/8/8
10	▲1	씨야 3집 / 돌풍	엠넷	가요	1,471	1,525	2008/9/30
11	▲4	카라 미니앨범2집 / Pretty Girl	엠넷	가요	1,464	1,363	2008/12/4
12	▼3	정엽 1집 / Thinkin' Back On Me	엠넷	가요	1,255	2,146	2008/11/4
13	▲4	슈퍼주니어 해피 / 요리왕	에스엠	가요	1,039	1,147	2008/6/5
14	▼6	윤상 / Song Book : Play With Him	예당	가요	958	2,821	2008/12/11
15	▲4	윤종신 11집 / 동네 한 바퀴	로엔	가요	904	1,093	2008/11/26
16	▲12	원더걸스 1집 / The Wonder Years	로엔	가요	850	742	2007/9/13
17	▲5	소녀시대 1집 / 소녀시대	에스엠	가요	843	985	2007/11/1
18	▲8	엠씨 더 맥스 6집 / Via 6	비타민	가요	769	823	2008/9/30
19	▲20	하우스 룰즈 2집 / Star House City	로엔	가요	715	526	2008/12/9
20	▼6	황프로젝트 With 박효신 1집 / Welcome To The Fantastic World	비타민	가요	708	1,390	2008/11/26

출처 : 주)한터정보 (기간:12월 19일 – 31일)

이번 주 음반차트는 전체적인 판매량이 확 줄어들면서 스테디셀러의 강세가 돋보이기는 하였지만 10위권 이하의 음반 판매량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2008년 마지막 주의 음반판매는 매우 저조하였다. 이와 더불어 1위에서 10위 사이의 음반들 중 절반 이상의 음반들이 지난주에 비해 낮은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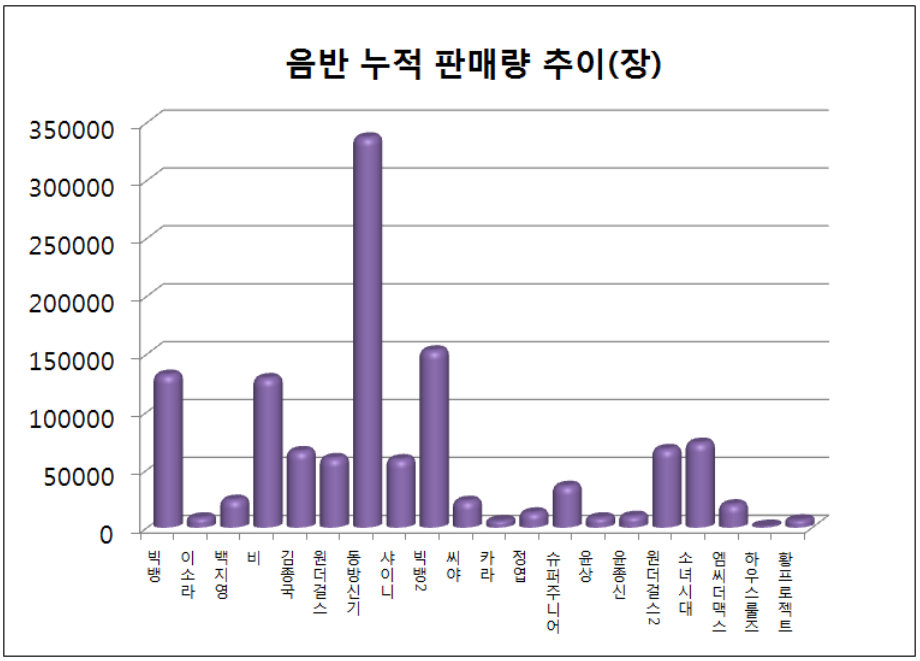
이는 연말 특집 가요프로그램들의 방영의 빈도수가 높아지고 여러 가수들이 콘서트를 열면서 음악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음반보다는 방송과 공연 등으로 분산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또한 강력한 판매력을 보유한 가수들의 음반 발매가 없는 가운데 기존 앨범들의 구매층이 바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음반 판매량의 저하가 계속 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출처: 주)한터정보, 편집:사)한국문화전략연구소 문화와경제 (기간:12월19일 – 31일)

계속되는 음반 판매량의 하락 속에 누적판매량 역시 지난 주와 거의 변함이 없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다. 금주 판매량이 더해지기는 했으나 누적 판매량은 여전히 동방신기가 앞서고 있고 이를 두 개의 빅뱅 앨범과 비가 추격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는 새해가 시작되고 새로운 음반 출시가 가속화되지 않는 이상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주)한터정보, 편집: 사)한국문화전략연구소 문화와경제 (기간: 발매일 – 12월31일)

각종 시상식과 방송 프로그램 등에서 한 해의 가요계를 정리하고 기념하는 화려한 무대와 특집 기획 등을 많이 만나볼 수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 같은 움직임은 음반 판매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음반 판매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중시켰다.

작년과는 다르게 10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보인 앨범들이 늘어나면서 그 어느 때보다 활기를 보였던 2008년이지만 시작과 다르게 그 마무리는 매우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는 시기상으로 지난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음반들의 출시를 기다리기 위한 숨고르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 큰 위기감은 느끼지 않아도 될 듯 하다.

3.2 음원동향 : 신곡이 그리운 음원차트

2008년의 마지막 주인 12월 4주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백지영의 <총 맞은 것처럼>이 1위 행진을 이어나갔다. <총 맞은 것처럼>이 최근 계속 1위를 지키고 있는 것과 더불어 음원차트는 큰 움직임 없이 기존의 차트 진입 곡들의 체류가 길어지고 있다.

이처럼 음원차트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가수들의 신곡발표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10월과 11월 하루에도 몇몇의 가수들이 신보를 발표했던 풍경과는 상당히 대비되는 풍경이다. 아마도 연말의 특성상 각종 시상식, 콘서트, 특집 방송 등의 여파로 신곡을 홍보할 수 있는 통로가 크게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는 현상으로 풀이된다.

네 개의 사이트를 통틀어서 20위권 안으로 새롭게 진입한 곡은 거미의 <내게로 오는 길>, 이지아의 <러브 바이러스>, 윤건의 <가려진 시간사이로> 정도이며 이 곡들 역시 중하위권에 머무르면서 그다지 큰 반응은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순위	벅스 12/20 ~ 12/26	엠넷 12/22 ~ 12/28	도시락 12/22 ~ 12/28	멜론 12/21 ~ 12/27
1	백지영 / 총맞은 것처럼	백지영 / 총맞은 것처럼	백지영 / 총맞은 것처럼	백지영 / 총맞은 것처럼
2	린 / 매력쟁이	김경록 / 이젠 남이야	카라 / Pretty Girl	빅뱅 / 붉은 노을
3	케이윌 / 러브119	빅뱅 / 붉은노을	동방신기 / 주문	케이윌 / 러브119
4	팀 / 나란 사람	케이윌 / 러브119	빅뱅 / 붉은노을	브라운아이드걸스 / My Style
5	카라 / Pretty Girl	SS501 / U R Man	SS501 / U R Man	린 / 매력쟁이
6	민경훈 / 하루	카라 / Pretty Girl	케이윌 / 러브119	카라 / Pretty Girl
7	빅뱅 / 붉은노을	린 / 매력쟁이	린 / 매력쟁이	SS501 / U R Man
8	이승철 / 듣고 있나요	민경훈 / 하루	민경훈 / 하루	김종국 / 어제보다 오늘 더
9	SS501 / U R Man	럼블피쉬 / 비와 당신	브라운아이드걸스 / My Style	원더걸스 / Nobody
10	M.C the Max / Goodbye To Romance	브라운아이드걸스 / My Style	나몰라패밀리 / 붙잡아도	비 / Rainism
11	나몰라패밀리 / 붙잡아도	이승철 / 듣고 있나요	원더걸스 / Nobody	이수영 / 이런 여자
12	가비앤제이 / 착한 사랑	나몰라패밀리 / 붙잡아도	김경록 / 이젠 남이야	손담비 / 미쳤어
13	럼블피쉬 / 비와 당신	거미 / 내게로 오는 길	비 / Rainism	비 / Love Story
14	박지헌 외 / Happy Together	M.C the Max / Goodbye To Romance	이지아 / 러브 바이러스	은지원 / Dangerous
15	브라운아이드걸스 / 좋은날	비 / Rainism	박정현 / 윈터키스	나몰라패밀리 / 붙잡아도
16	김경록 / 이젠 남이야	김종국 / 어제보다 오늘 더	박지헌 외 / Happy Together	박지헌 외 / Happy Together
17	마이티마우스 / 패밀리	원더걸스 / Nobody	럼블피쉬 / 비와 당신	브라운아이드걸스 / 어쩌다
18	브라운아이드걸스 / My Style	이수영 / 이런 여자	김종국 / 어제보다 오늘 더	휘성 / 별이 지다
19	M to M / One Day	마이티마우스 / 패밀리	빅뱅 / Number1	빅뱅 / 하루하루
20	윤건 / 가려진 시간사이로	동방신기 / 주문	M.C the Max / Goodbye To Romance	언터쳐블 / It's Okay

출처 : 벅스, 엠넷, 도시락, 멜론

음원사이트 별로 살펴보면 벅스의 경우 새로운 곡의 선전이나 강세는 볼 수 없는 가운데 기존 곡들이 자리바꿈을 하며 여전히 차트를 구성하고 있었다. 약간의 순위 변경은 11월 이전 출시 곡들이 대부분 하락세를 보이면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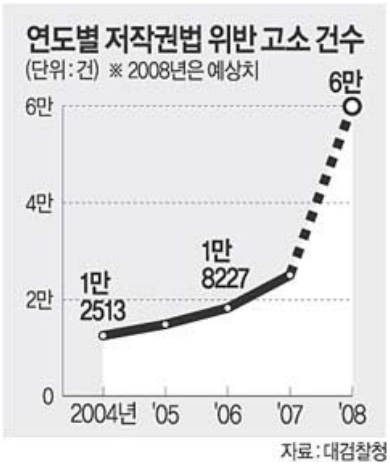
엠넷의 경우 역시 기존 곡들이 차트를 구성하는 가운데 김경록의 <이젠 남이야>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었고 다른 사이트 역시 약간의 순위 변동은 있지만 기존 곡들의 체류가 계속되고 있었다.

이 같은 전체적인 하락세 속에서도 1위에서 3위까지의 최상위권 곡들은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2008년 하반기 활발히 활동하던 가수들이 12월을 기점으로 활동을 접는 것과 동시에 1월 컴백을 계획하고 있는 가수들의 소식이 발표되고 있어 현재와 같은 움직임은 조만간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4. 언론 동향

4.1 '묻지마 저작권 소송' 어디까지?



*문화일보 2008/12/26자 차트인용

지난 주, 포털 사이트의 저작권법 위반과 관련된 형사 소송 분이 언론의 이슈가 된데 이어 이번 주는 '묻지마 저작권 소송'에 따른 피해와 그 대책 마련이 가시화 되며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특히 언론은 정부와 국회의원들, 학자들을 비롯하여 네티즌들까지 가세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고 보도하였다.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저작권 침해에 따른 고소는 인터넷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대검찰청에 따르면 인터넷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하는 네티즌 수는 해마다 크게 늘고 있으며, 2003년 1만369건에 그쳤던 저작권법 위반 고소 건수가 지난해 2만5027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덧붙여서 대검찰청은 올해는 상반기(1~6월) 동안에만 3만2446건을 기록하는 등 연간 6만 건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예상했다. (문화일보 보도자료 인용)

이에 대해 언론은 정부와 국회의원들, 학자들을 비롯하여 네티즌들까지 가세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으며 법무부 역시 '묻지마 소송'을 민생에 부담을 주는 소송으로 보고 관련 부처 및 단체와 협의해 올 1월 안으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관련기사]
<'포털 저작권 분쟁' 이대로 좋은가-上>'1년 6만건' 무차별 고소 난무 [문화일보 2008-12-26]
<'포털 저작권 분쟁' 이대로 좋은가-下>저작권자-포털 상설협의체 시급 [문화일보 2008-12-29]
'묻지마 저작권 소송' 발 못붙인다 [서울신문 2008-12-30 04:18]
장나라 6집 판매금지 소송, 해프닝으로 끝나 [동아일보 2008-12-24 17:19]
음식점에서 꼭 알아야할 배경음악 관련 상식! [이데일리 2008-12-29 15:33]

4.2 박진영·휘성·은지원 등 청소년 유해매체 '무더기' 판정

언론은,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지난 29일 발표한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에서 박진영과 은지원, 휘성, 바나나걸, 에픽하이 등의 노래가 청소년유해매체 판정을 받았다고 보도했으며 선정적인 표현과 마약표현 등이 이번 판정의 기준이 됐다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입장을 전했다.

이들 청소년유해매체 판정을 받은 음반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 임을 표시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제작사, 유통사, 판매사 등에 과징금이 부과된다.

한편 가수 박진영의 7집 음반이 청소년 유해매체 판정을 받은 데 대해서는, 1년 전에 발매된 만큼 이미 소비가 다 이뤄진 상태에서 과연 '경고' 이상의 효과가 있는 조치인지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데일리SPN'의 31일자 보도에 따르면, 매체환경과와 가진 전화에서 한 관계자는 "박진영의 음반은 '해당 음반의 수록곡이 선정성으로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네티즌의 심의 요청이 많았다"며 "좀 늦긴 했지만 이번 달(12월) 심의에서 다루게 됐다"고 말했고 "앞으로도 발매 시기가 좀 지난 음반이라도 가사 선정성 관련 문제가 제기된다면 심의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쿠키뉴스의 31일자 보도에 따르면 박진영의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측은 모 연예 매체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의 유해판정에 대해 이미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비, 동방신기의 뒤를 이어 박진영, 에픽하이 등 가요계를 주도하는 스타들의 노래에 대한 유해매체 판정은 그 실효성과 현실 모순에 있어 지속적인 논란을 제공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문화 산업의 방향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박진영・은지원 노래도 청소년유해물 판정 [연합뉴스 2008-12-31]
박진영·은지원·휘성·에픽..청소년유해매체 '무더기' 판정 [스타뉴스 2008-12-31]
박진영-휘성-은지원도 유해매체 판정? 들을 노래가 없다 [동아일보 2008-12-31]
박진영 7집 발매 1년 지나 뒤늦게 유해 판정...실효성은? [이데일리 2008-12-31]

4.3 보아·세븐·비, 해외 음반시장 본격 공략

언론은 보아의 디지털 싱글 '잇유업'이 최근 빌보드지 '클럽차트'에서 순위에서 15위까지 진입하는 등 선전을 펼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비록 클럽차트가 마이너 차트이지만 가수의 성장 가능성을 짚어주는 중요한 지표로 평가된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수 비 역시 '레이니즘'의 아시아판 음반이 대만,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각국 음반차트 1위에 오르며 순조롭게 시작했다고 보도됐다.

또한 남성그룹 동방신기는 일본 진출 4년 만에 정상급 가수로 인정받았는데, 동방신기는 올해 일본에서 발표한 4장의 싱글을 모두 오리콘 주간차트 1위에 올려놓으며 역대 외국인 아티스트 사상 최다 1위 기록을 경신했다고 보도했다.

이렇듯 해외로 진출한 가수들의 전망은 앞으로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데, 보아가 올해 정규음반을 내는 데 이어 세븐과 민, 임정희 등도 미국에서 앨범을 발매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 음반시장은 194억달러(2007년)로 세계 최대 규모이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기사]

보아・세븐・비, 美 음반시장 본격 공략 [한국경제 2008-12-31]
비, 亞 음반 아시아 각국 차트 1위 [동아일보 2008-12-31]
동방신기,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신출귀몰' [한국일보 2008-12-30]
보아, 美빌보드 핫댄스 클럽 플레이 차트 15위 [조이뉴스24 2008-12-26]

4.4 주요 단신

클래식, 스타와 손잡고 대중 곁으로

[관련기사]

강마에·김연아' 음반…클래식, 스타와 손잡고 대중 곁으로 [마이데일리 2008-12-28]

블루오션으로 떠오르는 매장음악서비스

[관련기사]

블루오션으로 떠오르는 매장음악서비스 [이데일리 2008-12-26]

오투잼-울림엔터테인먼트, 음원 공급 계약

[관련기사]

오투잼-울림엔터테인먼트, 음원 공급 계약 [노컷뉴스 2008-12-29]

5. 행사 및 협회 소식 등

5.1 스쿨뮤직 '쇼킹 트위스트 뮤직 페스티벌' 개최

온라인 악기판매 전문기업 스쿨뮤직은 '쇼킹 트위스트 뮤직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쇼킹 트위스트 뮤직 페스티벌'은 클래식 음악을 자신의 개성에 맞게 편곡해 연주 및 노래와 춤으로 표현하는 독특한 형식의 페스티벌이다. 참가자는 장르 구분 없이 편곡해 응모할 수 있다.

이번 페스티벌은 오는 2009년 1월 9일까지 개인 또는 팀으로 응모 가능하며 심사는 편곡에 대한 독창성과 기발함, 성실성, 연주수준의 완성도 등의 기준에 따라 진행된다.

[관련기사 및 사이트]

스쿨뮤직 '쇼킹 트위스트 뮤직 페스티벌' 개최 [고뉴스 2008년 12월 30일]
http://www.animaxtv.co.kr/event/20081201/event.asp

5.2 '메가TV 라이브' 개국 기념, '메가TV 樂 페스티벌' IPTV 내 공개

KT는(www.kt.com) 30일 국내 최초의 실시간 IPTV 방송인 '메가TV 라이브' 개국을 기념하고 메가TV의 지역 인지도 확보를 위해 19일 강원도 평창군 용평 스키장에서 개최한 '메가TV 樂 페스티벌' 콘서트를 메가TV내 '음악'메뉴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공연은 국내최초로 메가TV만의 특성을 살린 제작 기법 '멀티앵글' 영상 서비스를

시도해 시청자가 보고 싶어 하는 영상과 가장 가까운 각도에서 화면을 잡고 있는 카메라를 시청자가 직접 선택해서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관련기사]

메가TV 樂 페스티벌 공개 [세계일보 2008.12.30]

5.3 엠넷미디어, 부장급 음악사업부문 경력사원을 모집

CJ그룹 계열의 토탈 뮤직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엠넷미디어에서는 부장급 음악사업부문 경력사원을 모집한다. 경력 10년 / 대졸이상 지원가능하며 나이 및 성별은 무관하다. 국내외 음악시장에 대한 경험 및 지식 또는 문화콘텐츠 산업분야에 대한 지식 보유자로서 영어 능통자는 우대한다. 전형방법은 1차 서류전형, 2차 인성/실무면접, 3차 임원면접으로 진행되며 지원방법은 CJ그룹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가능하며, 접수는 01월 11일 마감한다.

[관련사이트]

http://recruit.cj.net/

5.4 이소라 '7집의 '노래 제목 공모' 이벤트 진행

가수 이소라가 자신의 7집 정규앨범 타이틀곡을 비롯해 4곡의 노래 제목을 인터넷을 통해 공모했다.
이번 '노래제목 공모'는 23일부터 30일까지 싸이월드에서 진행했다.

- 기존 가수 음반발매 이벤트 대비하여 이번 이소라 7집의 노래제목 공모 이벤트는 연말 시상식 등으로 언론수요가 많은 시점에서 언론과 관련 팬들로부터 관심을 끄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7집 정규앨범 이소라 '노래 제목 공모합니다' [스포츠서울 - 2008년 12월 28일] 외

1. 해외 음악산업 동향

1.1 디지털 음악 시장의 성장은 계속 된다

Forrester Research Inc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디지털 다운로드와 유료회원제 등을 포함한 미국의 디지털 음악 판매는 복합적인 측면에서 매년 17%의 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 결과, 2013년에는 디지털 음악이 전체 음반 시장의 41%를 차지할 것이다.

하지만 Forrester Research는 연구를 통해 디지털 음악 시장의 확대가 CD 시장의 축소 분 만큼을 대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전망했다. 디지털 음반시장이 늘어나도 전체 음반시장 자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7월에 Forrester Research에 의해 합병된 Jupiter Research가 최근에 실시한 소비자 설문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시장에서 음원을 구매하는 성인들의 시장 점유율은 늘어나고 있고, 그 중 53%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 반면 온라인 유료회원제는 남성의 비율이 58%로 더 많았다.

두 집단 모두 MP3 플레이어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이지만 온라인 유료회원제는 휴대전화를 통해 음악을 듣는 형태로 새로운 시장에 더 빨리 반응하는 것이다.

휴대전화는 아직 음악 공급원으로서 확고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것을 기반으로 한 음악 소비자들의 시장은 매우 크게 성장하고 있다. 연구 전망에 의하면 2013년에 MP3로 재생 가능한 휴대전화 시장은 약 2억 4000만 달러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인구의 75%가 차후 5년간 MP3가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소지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그동안 여러 기사에서 언급했듯이, 음악시장에서 디지털 음악시장은 매우 중요한 시장으로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것이 음악 시장 전체의 축소를 극복해 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아직 남아있다. 하지만 휴대전화와 같이 우리가 생활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음악 공급원 시장의 확대 등을 고려해 볼 때, 음악시장 자체가 비관적인 상황은 아닐 것으로 예측된다.

[관련기사]

Digital music sales are expected to grow at 17% annually, study says, InternetRetailer.com, IL 2008-12-30

1.2 음반회사, 인터넷을 통해 재기를 꿈꾸다

MTV 출범 20여년만에 음반회사들이 뮤직비디오를 온라인으로 공동 서비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무너진 음반 판매에 새로운 디지털 수입 중 하나로 예측했던 작년 구글과의 계약에서 그들이 기대했던 만큼의 수익배분(율)이 광고수익에서 이루어 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지난 주 워너뮤직과 유튜브와의 재계약에 실패에 나타났다.

현재 음반회사들은 News Corporation과 NBC Universal이 연합하여 만든 온라인 TV회사인 Hulu와의 협력, 구글의 자회사인 유튜브에서의 프리미엄 서비스 등에 대해서 검토 중이다.

미디어 조사 기업인 Screen Digest는 지난 달, 2008년 광고 시장에서 Hulu와 유튜브가 각각 7천만 달러와 1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고 추산했다. 그러나 내년에는 Hulu가 유튜브와 같은 수준이 될 것이다. 광고주들은 Hulu의 전문적인 콘텐츠능력에 소비자들이 더 관심을 가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유튜브와 워너뮤직이 재계약에 실패함으로써 Hulu가 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것은 유튜브와 협상이 잘 안되더라도 음반 회사들이 온라인 시장에서 뮤직비디오를 통한 수익창출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Hulu와 계약이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Hulu는 오직 미국 내의 유저들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유튜브와의 협상 또한 계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관련기사]

Music industry looks to internet for revival, Financial Times, 2008-12-28
Music labels in talks with Hulu, The Register, 2008-12-30

1.3 디지털 음악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에 주목하다

1.3.1. 소비자가 만드는 음악, RjDj

RjDj는 아이폰의 음악 관련 응용프로그램으로 "Reactive"라고 부르는 새로운 장르의 음악을 만들어 내고 있다. RjDj를 통해 청취자들이 듣는 음악은 듣는 그 순간에 디지털 장치를 통해 재생산되며, 그렇게 재생산된 "Reactive music"는 지난 주 애플 사이트에서 두 달 동안 15만개가 넘는 다운로드를 기록했다.

RjDj는 Last.fm의 설립자 Micahael Breidenbruecker에 의해 만들어졌고, 상호작용하는 음악 경험을 제공한다. 그것은 누구나 iPhone을 사용하여 그들 주변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들을 녹음하여 재구성할 수 있게 만든다. 즉, iPhone의 PD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헤드폰을 통해 듣는 음악을 조정하고 자유롭게 역동적 음악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러한 RjDj는 소비자가 특정음악에 자신들의 좋아하는 음악 혹은 소리를 결합시켜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낸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그리고 29일 RjDj팀은 RjDj Shake라고 부르는 후속 응용프로그램을 배포하였다. 이 응용프로그램은 외부의 입력을 통해 음악을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 RjDj와 비슷하나, 소리를 사용하는 것을 대신하여 iPhone(혹은 ipodtouch)의 가속도계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일방적인 핫 미디어의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 소비자는 보다 적극적으로 생산 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인터넷은 그러한 의미에서 그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훌륭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RjDj와 같은 프로그램은 훌륭한 영역과 시대적 흐름을 모두 반영한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꾸준히 소비되고 발전될 것으로 여겨진다.

[관련기사]

Last.fm founder's 'reactive music' album a hit on Apple iPhone App Store, Macworld UK, 2008-12-23
RjDj Continues To Be The Trippiest App On The iPhone (And I Love It), TechCrunch, 2008-12-29
웹문서 what the heck is RjDj?

1.3.2. 음악 변환프로그램 UD-10.1 Lite.

사람들은 자신의 CD 플레이어와 작별하고, 아이팟이나 컴퓨터에 저장된 음악 재생 목록을 음악 시스템에 연결하고 있다.

홍콩의 한 회사는 이러한 음악 재생 시스템을 위해 저렴하고 작은 디지털 증폭기 Trend Audio UD-10.1 Lite를 발표하였다.

작은 은색상자 형태인 UD-10.1 Lite는 USB를 통해 컴퓨터나 노트북에 연결해 음악 파일들을 디지털 원형으로 풀어낼 수 있다. UD-10.1 Lite의 디지털 옵션은 디지털 신호를 보존하는 것이지만, 그것를 다시 오디오-비디오 수신기를 통해 아날로그로 변환할 수도 있다.

즉, UD-10.1 Lite는 아날로그 음악을 디지털 형식으로 바꿔주는 장치로, 원곡 상태는 보존하면서 음질이나 목소리 상태를 바꿔 우리의 귀를 편안하게 해준다.

- 아날로그 음악을 디지털로 바꿀 때의 음질의 저하현상은 예민한 음악 청취자들에게 여전히 음반을 구매하게 하는 이유 중 하나였다. 하지만 UD-10.1 Lite와 같은 변환 장치가 개발됨에 따라 디지털 음악 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Connecting your digital music library directly to sound system, Baltimore Sun, United States, 2008-12-30

1.4 여전히 지속되는 저작권 문제들

1.4.1. RIAA의 Jammie Thomas에 대한 항소 기각

미국 미네소타 주 연방판사인 Michael Davis가 올해 싱글맘인 Jammie Thomas에게 네트워크상 음악파일 공유에 따른 벌금형 약20만 달러가 선고했을 때, RIAA(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는 벌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항소를 했다. 하지만 Michael Davis는 수개월 전에 있었던 Jammie Thomas 사건이 판사가 배심원들에게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음악을 p2p 네트워크를 통해 다운로드가 가능하게 하는 행위만으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확 증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없음에도, 침해라고 잘못 설명하여 배심원들이 오심을 판결했고 이에 따라 중간 판결이 무효화 되었다. 따라서 RIAA의 벌금이 적다는 이유로 한 항소역시 자동적으로 기각되어져 버렸다.

따라서 RIAA는 중간판결의 자동기각으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으며, 이는 사실상 불법여부를 다시 묻는 재심을 의미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최근 RIAA가 ISP와 '점진적 반응'이라는 계약을 체결하고 개인들의 불법적 음원사용에 대한 광범위한 법적 행동들을 중단하기로 함에 따라, Thomas를 향한 재판은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 것이다. Jammie Thomas의 재심에 대해 RIAA가 어떤 형태를 취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저작권 전략에 대한 실체적인 접근방법을 보게 될 것이다.

-지난 주 RIAA는 ISP와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그동안 그들이 진행해왔던 3만명이 넘는 사람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미 중간 판결이 났던 Jammie Thomas의 사건이 오심으로 판결나고, RIAA의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 RIAA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 것인가에 대해 이목이 주목되고 있다. RIAA의 결정은 앞의 기사에도 나타났듯이 그들의 새로운 저작권 전략의 한 형태가 될 것이다.

[관련기사]

RIAA appeal in Jammie Thomas case refused, Ars Technica, 2008-12-29외

1.4.2. 음반 회사들, 호텔과 감옥에 저작권료 요구

아일랜드 음반회사들이 호텔과 교도소에 대한 음악 저작권료를 요구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세금감면을 정부에 요청하는 법률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인테넷 다운로드로 인해 CD 판매가 급속히 위축되자 새로운 수입원 개척과 함께 비용 감축을 요구하는 새로운 형태의 수입원 창출에 대한 접근이라 볼 수 있다.

아일랜드 음악산업 관련기관인 PPI(Phonographic Performance Ireland)의 회장인 Dick Doyle는 거의 모든 유럽처럼 아일랜드의 호텔에서도 음악사용에 관한 라이센스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일랜드 호텔 협회는 특별한 의견을 내놓지 않은 상태이며, 호텔과 나이트클럽은 음악 재생 시 저작권을 지불하는 것에 대한 법정 싸움을 오랜 동안 하고 있는 상태다.

아일랜드에서의 음반 판매는 2001년 1억 4600만 유로에서 2008년 1억 2만 유로로 감소했다.

- 음반회사들의 호텔과 감옥에 대한 저작권 요구는 현재 음반회사의 음반 판매의 감소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들이 이러한 손해를 이겨내기 위해 얼마나 다양한 방법을 찾아내고 있는 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저작권 분쟁은 음반회사들이 그들의 시장 감소를 이겨낼 만한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아낼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관련기사]
Music firms want royalties from hotels and prisons, Times Online, UK, 2008-12-27

1.5. 주요단신

Walmart, Unilever와 음악 소매 사이트에 관해 협력하다
[관련기사]
Walmart, Unilever Up Partnership in Retailer's Music Site, AdAge.com (subscription), 2008-12-29

Sony, Albert와 라이센스 재계약
[관련기사]
Sony, Albert Re-Up Licensing Arrangement, Billboard Business News, 2008-12-26

2. 한류관련 음악산업 현황

2.1 가수 비, 태국 · 대만챠트 1위로 아시아시장에서 기염

비(Rain, 본명 정지훈)가 아시아 판 앨범 발매를 시작한 후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비의 소속사인 제이튠 엔터테인먼트가 밝혔다.
제이튠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태국, 대만, 홍콩 등 7개국에서 12월 중순께 발매된 비의 5집이 태국 대규모 음반체인점 그래모폰의 아시아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한데 이어 대만의 최대 음악포털 사이트 KKBOX에서도 1위에 올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16일 대만,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중국어권 6개국에서 비의 5집 아시아 판 앨범 판매가 개시된 데 이어 18일에는 태국에서 영어 버전 아시아 판 앨범 판매가 시작됐다.
특히 태국 최대 음반 판매사인 '그래모폰(Gramophone)' 챠트에 따르면 앨범 발매 1주차도 되지 않아 아시아 차트 1위를 석권해 관계자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대만 최대 음악 포털 사이트인 'KKBOX'에서는 발매 직후부터 2주차인 현재까지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다.

오는 1월 12일과 14일, 양일간 개최될 비의 일본 팬미팅이 티켓 판매 4시간 만에 전석 매진을 기록한 가운데 소속사 제이튠엔터테인먼트는 "일본 팬미팅을 시작으로 타 아시아 지역 공연 및 프로모션 일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수 비, 아시아판 앨범 판매 시작 태국차트 1위 폭발", 중앙일보, 2008-12-30
"비, 아시아 팝시장 '날개 달았다'" 매일경제, 2008-12-30
"가수 비, 5집 '레이니즘' 아시아서도 잘 팔린다" SBS뉴스, 2008-12-31

2.2 한국 가수들, 美 음반시장 진출 러쉬

보아, 상반기 앨범내고 전미투어 추진 세븐, 2월 데뷔
비는 8월 듀엣곡 담은 월드앨범 발표하며 승부

한국 가수들이 올해 미국 음반시장을 공략하기위한 활동에 나선다 .

지난해 디지털 싱글을 미국에서 발표한 보아가 올해 정규음반을 내고, 세븐, 민, 임정희 등도 미국에서 앨범을 발매할 예정이다. 이들은 유명 프로듀서나 톱스타들과 함께 음반작업을 하고 있으며, 디지털 싱글을 먼저 발표하고 앨범을 내는 수순을 밟고 있다. 한국 가수가 미국에서 공연을 한 적은 있지만 음반 발매를 통해 시장공략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아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디지털 싱글 "Eat You Up"이 인기를 얻자 미국 내 유명 프로듀서들과 손잡고 올해 상반기 중 미국시장의 입맛에 맞는 정규앨범을 발표할 예정이다.
보아의 디지털 싱글 "Eat You Up"은 최근 빌보드지 '클럽차트'에서 순위가 15위까지 올랐다. 클럽차트는 마이너 차트이지만 가수의 성장 가능성을 알 수 있는 챠트이다. 앨범 판매량 뿐만 아니라 라디오방송과 클럽 등에서 곡을 사용한 횟수 등도 순위에 반영하기 때문이다.

세븐은 2월 중 미국에서 디지털 싱글을 발매하고 정식 데뷔할 계획이다. 세븐은 2006년부터 미국 진출을 준비하며 다크 차일드 , 리치 해리슨 등 유명 프로듀서와 계약했지만 음반사를 잡지 못해 데뷔가 늦어졌다. 보아처럼 아이튠즈 등 온라인에 음원을 공개한 후 오프라인 싱글을 발표하는 수순을 밟기로 했다.

가수 겸 프로듀서인 박진영이 준비하고고 있는 민과 임정희도 상반기 중 미국시장에 데뷔하기 위해 음반 작업에 들어갔다. 이들은 국내에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박진영이 미국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몇 년 전부터 준비해왔다. 이들의 소속사인 JYP 정욱 대표는 "민과 임정희 중 누구 앨범을 먼저 낼지는 현지 파트너와 시장 상황에 따라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극비리에 미국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비는 8월께 톱스타와의 듀엣곡을 담은 월드음반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보아・세븐・비, 美 음반시장 본격 공략" 한국경제, 2008-12-31
"결혼・美진출・해외수상..2009년 가상 연예기상도" 스타뉴스, 2008-12-31
보아, "美 빌보드15위 안착, 성공 아직 멀었죠" , 광남일보, 2008-12-31

※ "음악산업 주간브리프"는 게이트웨이 위콘(www.wecon.kr)의 '업계는 지금' - '산업동향' 코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